

재림 기도인

연합회보 2018 2

Prayer Coalition Newsletter - Issue 127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42-44)

사진: George/Bennie Phillips

권두언

기도인 연합 운동은 우리의 중요 사명입니다

2007년 8월 9일에 첫 출발한 기도인 연합모임이 지난 10년에 걸쳐 오늘에 이른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섭리이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확신합니다. 오늘까지 돌이켜 볼 때 우리의 기도인 모임이 어떤 든든한 기관의 도움이나 혹은 어느 독지가들의 후한 경제적 뒷받침 없이 이 운동의 자원 헌신하는 기도인들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여 한국, 일본, 미국에서 3차에 걸쳐 집회마다 수 백명이 모여 은혜 충만한 기도인연합 집회를 대성황리에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성회에 한국에서만 100명 참여하였으며 일본에서 연합회장을 비롯해서 교우 수십명이 미국인 여러 형제들과 재미 여러 교회들에서 참여한 교포 성도들이 모여 국제적인 연합기도의 성회를 가진 것은 잊을수 없는 사랑의 친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 기도운동을 계속 진행하여야 합니까? 먼저 매달 있는 연합기도회에 함께 모여 여러 국내외 선교지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잘 듣고 각 가정 기도의 골방에서 다니엘처럼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인들이 각 교회에서 앞장서서 기도운동의 선구자들이 됩시다. 바로 이 시대 우리가 갖출 영적 무기가 기도임을 깊이 느끼고 사도바울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 정병들에게 기록한 말씀을 명심합시다.

엡 6장 13-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말합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등을 5,6까지를 언급한 후이어서 끝으로 가장 중요긴 한것 하나를 결론적으로 추가해서 말했습니다,

엡 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 간구, 기도 구하기를 한 절에서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기도는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무기들 중 하나가 아니라. 바로 전투방법이고 전투 작전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할지라도 전투에 임하지 않거나. 방법을 모르면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 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인연합운동의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살펴보면 침례를 받으시고 첫 구속 사업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 가시어 40 일 금식기도로 시작하시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까지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어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애의 알파와 오메가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셨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승전가를 부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행 1:14)

이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과같이 내리었고 이 때 오순절 성령이 내리자 그 순간 즉시 세상이 온통 변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천연계도, 정치도, 핏박, 변화된 것은 오직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한 사람들, 즉 사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사도들에 의하여 온통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인 기도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지상에 탄생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상의 마지막 사업인 세천사의 기별도 기도로 변화된 성도들이 의해 세상에 널리 전파될 것이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오늘 우리 기도인 들은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프랑스계 미국인 유명 외과의사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알렉시스 카렐은 기도의 능력을 자기 체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확신으로 말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힘이다, 기도는 마음과 몸에 끼치는 영향은 보이지 않는 땀샘과 같이 분명하다. 그 결과는 증가된 부력과 같이 또한 엄청난 지적인 원기, 도덕적 힘, 그리고 깊은 인간관계의 이해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기도는 완전한 인성 발달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기도를 함으로써만 정신과 몸과 영이 완전히 조화된 일체를 형성할 수 있다“ 고 힘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연합기도운동에 참여한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 8:7) 이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연합기도 운동에 앞장 서십시오. 연합기도인 모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한규형 장로와 여러 임원들을 위해 감사 기도드립니다.

고문경 / 기도인연합



기도인연합 2018년 2월 정기모임 소식

사회: 정동춘 장로님

첫기도: 조경신 장로님 (예천 변화산)

조경신 장로님: 진찰사는 개신교 선교를 위해서 4 년전에 조직된 선교단체인데 미국의 일요일 교회 한성호 목사님의 안식일 진리 발표로 개신교 선교를 시작,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긍정적 반응, 이로 인해 더 확장된 복음사업을 위해 한국 미국 동남아시아까지 복음전도 씨뿌리기 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현재 전도지 1800 만 장이 각 가정에 보급되었고, 2017 년 팟빵 미디어를 통해 복음 전도사업을 개신교에서 개혁하신 두 목사님과 함께 진행 중, 또한 이 사업을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으로 일개월 후에 나가게 되는데 재림성도들의 퍼 나르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진리를 찾는 준비된 영혼들에게 전해지도록 연합기도 회원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경수 목사님: 케냐 감옥 2000 여명이 목을 축일수 있는 샘을 파서 좋은 물을 마시게 됨을 감사하고 마시는 물 뿐 아니라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기도해 온 기드온 훈련 센터를 지을 수 있는 5 에이커 감옥소 근처의 부지를 기부 받음. 그땅에 기드온 300 명 훈련소를 지어서 젊은이들을 1 년 훈련 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북아프리카 중동지역에 선교사로 파견 할 계획임. 더 많은 땅을 기부 받을 것인데

그곳에 본부를 세워 적극적인 복음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대영 목사님: 대표 연합기도 해 주셨습니다.

연합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회와 성도들이 늦은비 성령을 위해 준비되도록
 - a. 각 지역별 말씀 연구와 주간 기도회 결성 및 성장을 위하여
 - b. 진실된 신앙, 참된 신앙, 행동하는 신앙을 위한 기도
 - c. 교회내 영적 각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2. 한반도를 위한 기도
 - a. 북한에 하나님의 섭리로 재림기별이 속히 전파되도록
 - b. 비성서적 문화 / 사회적 변화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3. 10/40 창외 비 기독교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에 재림기별 속히 전파되도록
 - a. 인터넷/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교:진찾사 임원들과 준비하고 실행하는 모든 복음 사역을 위해
 - b. 세계 자전거 지원 선교회: 기드온 300 명 선교 센터 건축을 위하여:
이 센터를 통해 북 아프리카와 모슬람 지역 선교를 위해
 - c. 오아시스 세계 선교회: 방글라데시 기도주일 부흥회 (3 월 4 일-18 일) / 염소 선교 운동[Goats Mission Movement]의 확장에 성령의 큰 역사가 있도록

모든 참여자들의 그룹기도가 끝난후 이재현 목사님 (삼버그) 의 끝기도로 2 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최석근 장로님 말씀봉독: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 장 11-13)

(글: 류복례)



개신교 목사님들의 진리선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조경신 / 진찾사

"특별한 의미에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 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가장 중대하고 엄숙한 사업 세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다른 어떤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9T19

"모든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내가 세천사의 기별을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리스도 께서는당신의 종에게 이 기별을 주셔서교회에 그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세상에 오셨다. 이기별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들에게 전파 되어야 한다. 어떻게 이것을 전할것인가? 우리의 인쇄물을 보급하는것은 그 기별을 전파하는 한가지 방법이다. 모든 신자들은 현대 진리가 담겨있는 전도지와 소책자및 서적들을 널리 분포하라". SW 1904.1.5.

한국의 개신교 선교단체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미국 성결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한성호 목사님의 안식일 개혁을 위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글" 이라는 제목으로 미주신문에 안식일 개혁을 위한 양심선언의 신문광고 내용을 한국에서도 일간지에 실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선교 단체이다. 신문광고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에 나가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알고 준수하던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문의가 쇄도하였고 많은 상담과 자료를 보내주며 안식일 연구에 이르게

되었고 많은분들이 안식일 준수를 위해 개혁 하기에도 이르렀다.

하나님 께서 어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을 하지만 안식일을 잘못알고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도 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사 진리를 배우게 하는 계기였다.

지금도 여러 문제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안식일과 많은 진리들을 연구하고 계시며 성령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진리로 이끄시며 그들을 인도 하시고 계심을 확신한다.

당시에 일가지 신문에 광고가 나가자 지방교회들 에서도 지방신문에 똑같은 광고를 지역별로 계속 신게 되었고 연합회에서는 신문에 광고된 내용과 신문까지 그대로 광고부분만 인쇄하여 신문 전도지로 만들어 전국에 수백만장을 배포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이와같이 안식일 진리가 전파된것은 한국 재림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처음있는 일로 기억 된다.

개신교회에 지진이 일어났었다고도 하였다

그러면서 새힘을 얻은 임원들은 개신교 신자들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가정에도 집집을 방문하며 종합 전도지를 만들어 배포 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서울을 시작으로 14 개월에 걸쳐 서울시 350 만여 세대들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것을 바라보던 뜻있는 성도들이 전국에서 일어나 우리지역은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며 방문이 사작 되었고 3 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1500 만여 세대들을 방문하며 1500 만권의 전도소책자를 (24p) 전국에 배포하며 최진규 장로님은 한팀을 구성하여 미국에서 18 개월동안 300 여 만권의 책자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전국의 집집을 방문하시는 모든 대원들은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속에 아무런 사고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섭리 하셨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만약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방문에 참여해서 활동 하였다면 며칠이면 할수 있었던 일인데 소수의 인원이 활동하니 4년 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것 이었다.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전세계 성도들이 함께 사업에 참여한다면 세상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도 쉽게 마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전도지 인쇄비가 11 억원에 이르렀고 소형 트럭으로 180 대의 분량 이었다. 한 장로님이 신문광고비와 전도지 값을 헌신하셨고 우리들은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나도 팀을 이끌며 3년동안 농사일도 중단하고 이사업에만 전념하며 기쁨을 누렸다.

이제 북한에 주님께서 평화롭게 문을 여실때 즉시 들어가고자 마음에 다짐도 하고 있다.

전국 방문사업이 중반에 접어들 무렵에 진찾사 선교센터 담임인 이대영 목사님이 개신교회를 담임하시며 진리를 발견 하시고 신자들에게 안식일 까지 가르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시는 서성희 목사님과 개신교에서 재림교회로 개혁하신 이소자 목사님과 함께 인터넷 팟빵 종교방송을

하기로 계획을 하셨고 세분의 목사님이 매일 돌아가시며 진리를 설교하신 내용을 녹음하여 누구든지 링크로 찾아서 들을수 있도록 하여서 벌써 10 여개월 진행해 오시고 계시며 많은 반응을 받고 있다.

예리하게 진리를 파헤치시고 설교 하시는 중에 세인들의 관심을 받아서 종교방송 분야에서 랭킹 10 위권 안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진리가 SNS 를 통해서도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

그러던중 음성으로만이 아니라 동영상 으로도 복음을 전하자는 계획을 하였고 개신교 목사님 들의 신분으로 동영상 설교를 유튜브 에 올려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진리를 들을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곧 녹화에 들어가려고 준비중에 있다.

복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해져야 한다.

이것을 시기한것인지 서성희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에서 큰 문제가 발생 하였다.

안식일을 가르쳐 이해시키고 함께 지키는 가운데 다음 단계로 영혼 멸절설을 가르치시자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 하였다.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자녀들과 함께 신자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헌금도 주류를 담당 하시는 가정 이신데 장로님 부인께서 영혼멸절설은 받아 들일수 없다며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목사님은 기도 드리며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설교 하시자 이번에는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안식일교회의 가르침을 설교하면 자신의 가족들은 교회를 떠나겠다는 경고였다.

크나큰 시험을 당하신 서목사님은 기도하시며 끝내 진리를 양보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지게 되었다.

서 목사님의 상처가 얼마나 크실까를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목사님은 위로부터 새힘을 얻으시고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 하고 계시며 진리를 옹호하고 계시다.

서 목사님은 건국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신학을 하신후 목회를 해오시고 계시다 진리를 찾으셨다.

이런 분을 하나님 께서는 진리를 개신교 계에 널리 전파 하시는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 지금 준비 시키고 계신다고 믿어진다.

한국의 신문과 전국을 방문하며 복음이 각가정에 전달되어진 일들과 팟빵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를 통한 영상 설교를 통한 진리의 선포가 한국을 복음으로 환하게 하는 사업으로 더욱 발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의 수확으로 함께 기뻐 하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십시오.

진찾사 선교단체 대표 조경신 장로 드림

기도인 연합회에 보내는 글

전경수 / 세계 자전거 지원선교회

안녕하세요? 기도인 연합회에 함께 참여하여 기도로 함께하시는 여러나라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B.M.W.Inc (세계 자전거 지원 선교회) 를 위해 봉사하는 전경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에 부름을 받고 한국 동중환합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세계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남미 브라질에서 6년간 선교사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임기가 마치고 미국 앤드류스 대학으로 왔다가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앤아버 에서 개척 교회를 시작하여 3년 반동안 목회하다 마케도나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미국 목회를 접고 아프리카 선교와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 21 나라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가장 연약한 아프리카 동부쪽 나라를 선택하여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 차 혹은 2 차에 걸쳐 아프리카를 다니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자 (목사, 평신도 사역자들) 들의 형편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먼 나라의 백성들에게 다 전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동차 없이 걸어 다니며 목회하는 가난한 나라의 목회자들에게 자전거를 지원하여 신속하게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 주님이 속히 오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정말 구름 잡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지요. 처음에는 100 대의 자전거 달라 기도하였고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자 저는 더 많이 표준을 세우고 기도했습니다. 200 대... 그리고 300 대 ... 저는 정말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러나 이일은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최종적으로 2004년 9월 15일 아프리카로 갈때 제 마음은 정말 흥분과 감동이 뒤섞였습니다. 다 준비된 가운데 9명이 미국과 필리핀에서 아프리카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재정을 확인해 보니 자전거 400대가 넘는 재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너무나 좋아했지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자전거를 받으며 기뻐할 400여명의 목회자들 생각하니 잠이 안 오더라구요.

어린시절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 꿈이 드디어 35년만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지요.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국제 공항에 도착하여 땅을 밟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날 케냐 연합회 LMS 게스트 하우스에 여장을 풀고 잠을 자려하니 너무나 감동이 몰려와 잠을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작 한 두시간 눈을 붙였을까요? 이면주 목사님(현 방글라데시 연합회장) 과

한 방을 쓰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 시간을 가졌지요.

아침 동이 떠오르자 일어나 첫 날을 아프리카에서 맞이하는 저희 마음은 감동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창밖에서 노래하는 새들의 합창을 들으며...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모두가 검은 사람들 이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착한지!... 초등학교 시절 연탄을 배달하고 얼굴을 씻지못하고 교실로 들올때 여자 아이들이 나를 검둥이라 놀려대는 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검은 나라 검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니 너무나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정말 그 친구들은 나의 미래에 대해 미리 알려 주었는데... 돌이켜 보면 그것도 모르고 화를 냈던 내 마음이 한 없이 슬프기만 하다.

아프리카 케냐 아침 첫 방문지는 동 아프리카 지회였다. 지회를 방문하여 아프리카에 온 배경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아무도 반겨주는이가 없었다. 지회에 회의가 있다는것이다. 그래서 할수없어 교육부장인 키부카 목사 방을 방문하여 내가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돈을 꺼내 2,000 불을 장학금으로 내놓으니 눈이 휘둥그르다. 이우인즉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약속을 하고 간단다. 미국에 가면 장학금을 주겠다고... 기대가 크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여러 사정이 있어 돈을 못 보냈다는 내용을 수 없이 받았단다. 그래서 사실 키부카 박사는 내 제안에 관심이 없었다. 괜찮다. 약속을 안해도 별 문제가 없다.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것은 두번 그들을 실망 시키고 올리는 것이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약속을 하지마라. 만약 지키지 않으려면... 만약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라... 키부카 박사님이 돈을 받고 어찌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달려간다. 몇분이 지났다. 굳세게 닫혀있던 지회장 문이 열렸다. 그리고 회의가 중단되었다. 역시 돈의 힘이 엄청나게 위력이 있다. 잠시 지회장님 방에 우리 선교단을 초청했고

몇분동안 우리가 왜 아프리카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기도하고 지회를 떠났다. 이후로 지회장과 여러번 만나게 되었고 그의 요청으로 B.M.W. 케냐 지부 본부가 지회에서 4년간 지내게 되었다. 사무실도 제공해주었고 사택도 제공해주어 유재훈 장로님 부부가 2년간 그곳에서 B.M.W. 업무를 잘 처리해 주셨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 그 분들은 결국 카프르트에 메리 제니퍼 유 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고 현재 2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다시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린다.

케냐 연합회 중앙교회에서 120대의 자전거 기증을 갖점으로 탄자니아 연합회 교회에서 45대의 자전거 기증식.그리고 르완다 키갈리 중앙교회에서 100대의 자전거 기증식, 마지막 으로 콩고 고마에서의 100대의 자전거 기증식을 가졌다. 마다가스카라 20대, 짐바브웨 28대 그래서 첫 해 413대의 자전거를 기증해 주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정말 행복했다. 나눔이 이렇게 행복한 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413 명이 자전거를 타고 신속하게 전도한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이 사역에 참여하여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더욱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자전거 지원 선교회는 그 폭을 아프리카, 아시아와 중 남미 21 나라 지역으로 확장했고 그 동안 5,300 여대의 자전거를 지원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에게 자전거 나누는 심부름을 시키셨다고 나는 확신 합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께 2 만대의 자전거를 지원해 다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주님은 저희 마음을 잠시 교회 건축과 학교 건축으로 맘을 돌려 주셨다. 그래서 약 8년간 자전거 지원대신 학교건축 (고등 12 곳, 초등학교 12 곳) 을 24 곳에 건축 할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14 년동안 185 곳에 교회를 건축 할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금을 지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제 각교에서 방학을 이용하여 기드온 300 명 선교사 훈련을 시켜 각 부족에 보내 자신의 부족을 자신의 언어와 문화속에서 진리를 전도한다.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주님을 증거하며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분교를 세우게된다. 학교를 통해 우물을 파주고 학생들과 지역 사회에 물을 공급해 줌으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준다.

우물은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같기에 목말라 애타는 그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는것은 놀라운 기회가 된다.

지난해 8 월에 새로운 미션을 시작했다. 교도소 선교를 시작했다. 그곳을 선교한 케냐타 평신도 목사가 나를 교도소로 초청했다. 나는 정말 싫었다 교도소에 가는것이 굉장히 두려웠다. 그래서 그동안 교도소 선교를 미루어왔다. 그런데 성경 마태 25 장 36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 하신다. 내가 옥에 갇혔을때 와서 보았느냐? 나는 그 말씀을 읽을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괴로왔다.

그런데 나에게 기회가 온것이다. 그래서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나니 내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보게 되었다. 나는 마음을 바꾸었다. 그리고 교도소 선교를 해야 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들이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우리는 물이 없어 침례를 못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교도소에는 2 년간 물이 없어 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물을 파주면 5 에이커의 땅을 주겠다고. 그 지역 땅 값은 매우 비싸다. 도시에 붙어 있는 땅이기에... 수년전부터 공항이 가깝고 도시가 가까운 곳에 땅이 있다면 그곳에 아프리카 B.M.W. 본부를 만들수 있는데...

주님은 5 년만에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고 교도소 땅을 준비 하고 계셨다. 누가 5 만불을 내어 우물을 파 주겠는가? 그런데도 작년 연말까지 4 개월간 기도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다. 12 월 29 일 밤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한국으로 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듣던 목소리다. 호주에 갔다가 만났던 임광훈 집사님 이셨다. 연말이 가기전에 B.M.W. 선교 사업에 뭔가 투자하고 싶으셨다. 목사님! B.M.W. 사업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 입니까? 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뭔데요? 교도소에 우물을 파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네 약 5 만불 정도 듭니다. 잠시 대화가 중단되고 뭔가 생각에 빠졌다. 다시 전화기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그 우물을 파는데 돕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아내와 함께 기도를 드렸다.

목사님 ! 잘 알았습니다. 내일 3 만불을 보내고 2018 년 2 월에 나머지 2 만불을 보내겠습니다. 그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알지도 못하는 먼 이국땅 아프리카에 그것도 죄수들을 위한 교도소 사람들을 위해 재정을 보낸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 은 안했을 것이다. 임 집사님은 성령의 음성을 뿌리치지 않고 그 일에 순종했다. 이튿날 약속대로 3 만불을 B.M.W. 한국 지부 통장으로 송금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2018 년 1 월 3 일 아프리카로 출발하는 데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아프리카 케냐에 도착하여 이튿날 교도소를 찾아가 소장을 만나고 의논을 했다. 제가 드린 아니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물 팔 재정이 준비되었으니 1 월중에 우물을 파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물 파는 좋은 회사를 만나주면 좋겠다. 일은 정말로 빠르게 진행 되었다. 교도소를 방문하고 소장을 만난 모든 사실을 보고하자 임 집사님은 다시 2 만불을 B.M.W. 한국 지부로 송금해 주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닌가? 저는 케냐지부 총무인 솔로몬 목사와 우물 파는 회사를 찾아가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물 파는데 만 270 M 를 계약하고 2,4 밀리언 약 2 만 4 천불)

그리고 1 월 22 일 기계를 교도소 땅 우물 파는 곳으로 이동하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모두가 엄청난 기대속에 23 일 케냐에 봉사대로 온 밀알 봉사대 팀들과 함께 교도소 소장과 임원들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더깊이 땅을 파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180m 를 파들어가자 기다렸던 물이 땅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24 일 아침 교도소 사람들과 직원들 그리고 학생들, 마을 사람들이 기뻐 난리가 났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제 우물을 탱크를 만들어 모든 지역에 공급하고자 한다. 교도소 사람들, 교도소 직원들, 병원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학교와 주민들에게 물을 공짜로 지원해 준다. 주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도 그들에게 우물을 공짜로 제공해 주기로 한다. 이제 그 땅위에 새로운 사업을 펼치게 된다. 현재 준 땅위에는 농장과 B.M.W. 선교본부인 게스트 하우스(5~10 만불)를 건축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 기드온 300 명 선교사 훈련원을 건축 하고(25 만불) 초등학교를 건축 하고(25 만불) , 세계 선교 교회를 건축 (40 만불) 하여 (합 100 만불) 명실공히 아프리카 선교 센터 를 만들고자 기도하고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드온 선교사들을 훈련시켜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북 아프리카에 그리고 중동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자 한다. 이 일을 위해 기도인 연합회 회원들이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몇 사람 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재정을 투자하여 주님의 사역을 마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인 연합 회원 여러분!

이땅에서의 세천사의 기별을 속히 온 나라와 부족에게 전할때 주님이 오신다 했으니 마지막 허리띠를 동여 매고 우리 함께 힘을 합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사업을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년 2 월 20 일

B.M.W. 앤드류스 사무실에서 전경수 선교사 드림.



6 하원칙(5W1H)으로 풀어 쓴 세 천사의 기별

서문: 무한히 깊은 진리의 샘을 터지게 할 젊은 후배들을 고대하면서

손경상 / 기도인연합

코끼리를 만져 본 맹인들이 저마다 다른 주장을 늘어놓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 사람은 코끼리를 가늘고 기다란 동물이라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코끼리의 코만 만져 보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넓고 평평한 동물로 파악하였다. 배만 만졌던 것이다. 기둥으로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다리만 만졌기 때문이다. 코끼리처럼 거대한 동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체 각 부분을 자세히 만져 볼 뿐 아니라 신체 각 부분이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기능을 하여 코끼리란 동물을 구성하는지 잘파악해야 한다. 코끼리의 코가 왜 기다란지, 그 기능은 전체에서 어느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넓은 배와 기둥같이 튼튼한 다리 등 코끼리의 다른 부분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며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파악해야만 코끼리에 대해 자신 있게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4 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은 여러 진리로 구성된 거대한 진리의 복합체이다. 자칫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다룰 때 부분 부분의 진리를 전부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세 천사의 기별도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 앞에 최고의 진리로 빛나기 위해서는 기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진리가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필자는 6 하원칙六何原則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입각하여 세 천사의 기별을 분석하였다. 6 하원칙으로 파악하면 세 천사의기별이 갖는 의미를 빠짐없이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리들안식일, 하나님의 율법, 선악의 대쟁투, 남은 자손, 재림 등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구원의 위대한 진리를 구성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세 천사의 기별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언제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곧 온 세상어디서에 전해질 기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남은 자손누가에게 맡기셨으며, 그들은 선악의 대쟁투무엇을를 종결시켜 인류의 구원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재림을 준비왜할 것이다. 남은자손이 이 사명을 성취하는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어떻게인데, 그 이유는 오직 안식일이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함 사상 思想’으로 무장시켜 선악의 대쟁투를 승리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세 천사의 기별로 하나님의 율법은 회복될 것이며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하늘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 책은 케어 내면 낼수록 더 빛이 나는 진리의 보석들 가운데 극히 일부를 파낸 것에 불과하다. 본인의 무지와 얕은 지식으로 인해 정제되지 않은 찌꺼기가 다소 포함되어 있음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어쩌면 신학적 교육을 받지 않은 평신도가 낮은 수준으로 저술하였기에 세 천사의 기별에 담긴 진리가 보다 쉬우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되었기를 소망한다.

이 책에서는 ‘작은 빨’과 같이 중요하고 깊은 진리들을 다루지 않은 대신 ‘세 천사의 기별’의 기본적인 중요한 골격을 다루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진리들은 반복하였다. 비록 긴장감과 신선감이 조금 떨어질지라도 여러 측면에서 진리를 바라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바라기는 이 책을 통하여 교단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세 천사의 기별의 진수를 조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세 천사의 기별에 담긴 무한히 깊은 진리의 샘을 터지게 할 젊은 후배들을 고대하면서 이 글을 썼다. 그들이 쏟을 피와 땀으로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선한 품성을 깨달아 하루속히 대쟁투가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를 소원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동정심을 본받아 창조사역에 목숨을 건 모든 분과 함께 세 천사의 기별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은 필자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성도의 십일금으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전달된 성경 말씀들이 나의 신앙과 집필의 원천이 되었다. 별새꽃들과 과학관을 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소망이 힘이 되었다. 2012년 가을, ‘기도인 연합성회’ 때 이런 주제로 책을 쓰라는 홍명관 목사님의 당부에 순종하여 글을 정리하게 되었다.

1. 세 가지 관점에서 본 세 천사의 기별

이 책에서는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담긴 주요 진리를 세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행복幸福의 관점

행복은 모든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다. 선악의 대쟁투도 궁극적으로 선과 악 어느 쪽이 우주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싸움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본성과 율법을 ‘행복의 율타리’로 제시했지만, 루시퍼는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고 자신의 주장을 따라야 한다고 설득했다.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 곧 행복의 기별이라는 명제命題에는 세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마지막 시대에 불행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는 예견豫見을 내포하고

있다. 그때에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불행의 문제에 빠질 것은 사탄의 ‘악惡 사상’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영웅을 기다리듯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종교에 관계없이 자신을 이 불행의 문제로부터 구원할 복된 소식의 전달자를 기다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행복의 관점에서 세 천사의 기별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사상思想의 관점

사상은 행복과 불행의 문제를 야기한다. 선악의 대쟁투의 문제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다. 선과 악은 도덕적 관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의 ‘선 사상’과 사탄의 ‘악 사상’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상적 관점에서 보아야 그 싸움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의 주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선’ 곧 ‘선 사상’과 루시퍼가 시작한 ‘악 사상’의 실체를 파악하여 세 천사의 기별에 담긴 진리들을 깨우치고자 하였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대쟁투를 일으킨 것은 자신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것이 온 우주의 거민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탄의 이런 생각과 주장이 바로 ‘악 사상’이다.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의 본성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 사상과 하나님의 본성을 오해시키고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려는 사탄의 악 사상 사이의 싸움으로, 본질적으로 행복에 관한 싸움이다. 궁극적으로 어떤 사상이 우주 거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결로 승패가 결정되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선악의 대쟁투의 종결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 변경을 주장해 온 사탄의 주장이 우주에 불행을 가져왔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율법 곧 그분의 공의의 원칙이 영원토록 우주의 행복을 지켜 줄 유일한 원칙이라는 사실이 모든 우주 거민들 앞에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 이 일이 남은 자손의 손에 맡겨진 것이다. 결국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 사상이다. 이 책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인 ‘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표현은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선 사상으로 무장되었음을 뜻한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그분의 선한 품성의 사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가장 큰 이유도 왜곡된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바로잡아 올바르게 증거 하시기 위해서이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 사상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한편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품었던

악 사상은 대쟁투의 역사 내내 그 중심 사상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사탄의 악 사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은 명백히 진화 사상進化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주의 존재를 지금처럼 부인하던 시대는 이전에 결코 없었다. 필자는 하늘에서 대쟁투를 시작한 루시퍼의 악 사상이 무엇이고 그 사상이 현재 진화 사상으로 둔갑, 발전하여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파헤쳐 보았다. 진화 사상이 정말 남은 자손이 싸워야 할 사탄의 악 사상인지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창조 사상과 진화 사상이 무엇인지 또한 진화 사상과 하나님의 율법 사상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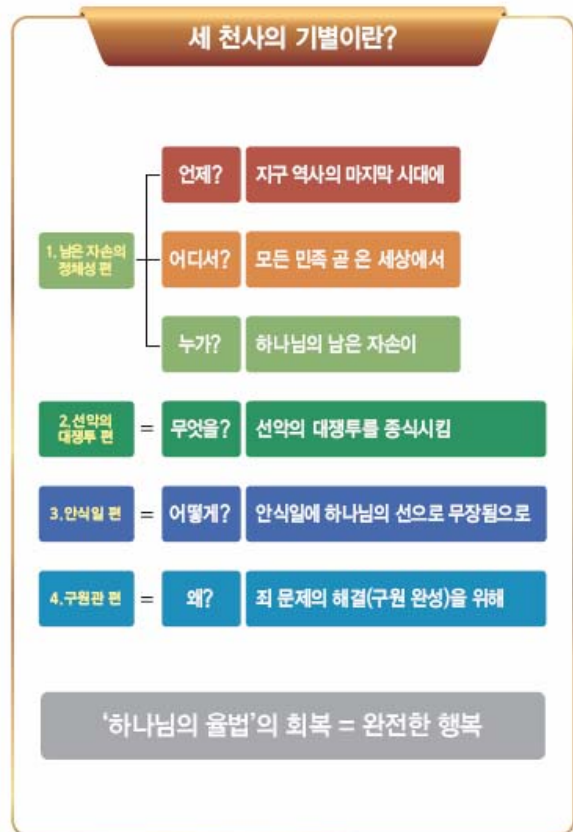
셋째, 구원救援의 관점

세 천사의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킬 기별이다. 이는 인류 구원의 마지막 기별로서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진수가 담긴 진리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을 만큼 구원에 관련된 진리들로 가득 차 있다. 죄가 무엇인지, 구원의 구체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원받을 인간상이 무엇인지 등등. 따라서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志向해야 할 신앙의 목표인 올바른 기독교 신앙관과 구원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별에서 구원에 관한 최고의 진리들을 찾을 수 있다. 세 천사의 기별은 구원의 진리가 담긴 보고寶庫이기 때문이다. 위의 세 가지 관점들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인 선이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모인다. 세 천사의 기별의 중심 사상은 선이다. 세 천사의 기별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진리는 선 사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구원의 길, 성경이 쓰인 목적, 안식일이 제정된 목적, 율법의 사상 그리고 사탄이 그토록 왜곡하고자 힘쓰는 대상도 하나님의 품성인 선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신앙의 초점이 선 사상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개념 정리이다. 예를 들어 선과 악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먼저 정확히 정리되어야 비로소 선악의 대쟁투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명료해야 구원의 개념이 명확히 잡힐 것이다. 우리의 사고 속에 성경적 죄의 개념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미 우리 사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적 개념으로 죄를 해석한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구원의 진리를 곡해하여 구원 문제에 대한 많은의문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기별 속에 담긴 구원의 진리를 찾기 위해 구원과 관련되는 단어들의 정확한 개념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추상적이고 다소 모호하게 알던 개념들을 보다 정확하고 명료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성경적 개념과 세상적 개념을 구분하였다. 이를 통하여 남은 자손의 정체성은 물론

선악의 대쟁투와 안식일 진리 등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담긴 진리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세 천사의 기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남은 자손에게 요구되는 진리는 바로 안식일 진리이다.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하나님의 선 사상은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안식일 진리가 지구 역사상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창조와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기는 역사상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므로 비로소 탄생한다. 이 책에서는 세 천사의 기별이 갖는 사회를 변화시킬 힘의 원천이 ‘안식일’에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안식일이 무엇이냐’보다 ‘안식일을 어떻게, 왜 지켜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는 과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제정 목적대로 지키고 있는지 반성하며 살펴보아야 한다.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선악의 대쟁투에 참여하고있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행복을 전할 마지막 기별이다.



〈그림〉 세 천사의 기별 요약

2017 국제림기도인연합성회 기념 출판 영의 세계와 그 투쟁

김명호 / 기도인연합

제 4 장 성경에 계시한 영들의 싸움 (II)

2.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열거하려면 많은 지면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구약성경의 사건은 이쯤 주리고 신약성경에 나타난 악령들의 활동을 살펴보자.

예수께서 봉사하실 때에 귀신들의 활동이 엄청 많았다. 복음서를 읽으면 귀신이 아주 많이 활동한 것 같이 느껴진다.

왜 귀신들이 이렇게 날뛰었을까?

시대의 소망에 있는 이 구절은 이런 이유에 대한 답이 아닐까? “사단은 예수님을 낙심하게 하여 그분을 당신의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그의 맹목적 사랑으로 유혹의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생각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다. 그 충동적 호소의 이면에는 그의 교사(敎唆)가 있었다.”(시대의 소망 416)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는 봉사가 효과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예수님을 세상에서 떠나게 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것보다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에 귀신의 활동이 훨씬 활발했던 이유는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낙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이 그의 부하들을 총동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신약성경 4 복음서에 귀신에 대한 말이 89 회나 기록되었다. 물론 각 복음서에는 같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 많기 때문이겠지만 복음서 전체를 두고 생각할 때에 많은 수가 아닌가.

사단은 그의 부하 악령인 천사들을 동원하여 가능한 한 예수님을 괴롭혔다. 예수님을 직접 괴롭힐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혀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에 휩싸이게 하려고 하였다. 또 사람들을 동원하여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적으로 대항하게 하였다. 이런 모든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 8:44)고 하셨다.

시대의 소망에 귀신의 활동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들을 읽으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려는 사단의 활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 중에 먼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기록을 잠깐 살펴보자.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데 길목에 귀신들린 사람이 있었다.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했고 마가,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두 사람 중에 더 알려진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가복음 5 장 1 절부터 17 절까지 이 기사가 있다. 예수님과 귀신들린 사람의 대화를 보자.

[막 5:6~13]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8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9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10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11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군대라고 할 정도로 수가 많았다.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 ‘레기온’인데 이것은 로마의 군대 한 군단을 뜻하는 단어이다. 로마군 군단은 6,000 명이었다. 그러나 돼지가 2,000 마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보아서 6,000의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2,000의 귀신이 들어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영혼불멸을 믿는 신학자들 주석가들은 이 사건을 희한하게 설명한다. 이 귀신을 죽은 뒤에 안식을 얻지 못하는 원한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는 것을 든다. 그리고 군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로마와 투쟁하며 저항하다 죽어간 유대인 희생자들의 영혼으로 설명한다.

영혼불멸을 믿으니까 이런 설명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다. 이 군대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들은 루시퍼의 부하 타락한 천사들이다.

아마도 루시퍼는 예수께서 틀림없이 이 귀신들린 사람을 찾을 것을 예상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한판 큰 싸움을 하려고 병력을 집중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가 많다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루시퍼 일당들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한판 싸움에서 힘 한번 못 쓰고 쫓겨났다.

거라사의 대결에서 하늘 전쟁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말씀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니 그들이 쫓겨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집단으로 대항하면 승산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 악령 귀신들을 그 사람에게서 나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없었다.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있을 곳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하늘에서는 그냥 도망 나와서 땅으로 내려왔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자 그들은 돼지 떼에 들어갔고 돼지들은 귀신들의 힘에 밀려 갈릴리 바다로 달려가서 물에 빠졌는데 2,000 마리가 몰사하였다.

왜 루시퍼는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했을까? 또 예수께서는 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을까?

분명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필요없이 사건을 그대로 인정하면 되겠지만 궁금하니까 사건을 살펴서 추리해 볼 수밖에 없다.

사단 루시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쁘게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요구했을 것이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재물을 손해 보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돼지 2,000 마리의 값은 지금도 적은 돈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배척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결과로 예수께서 사람을 구원하려는 사업은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이 땅에서 구원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수께서는 사단의 이런 계산을 아시고도 그 요구를 허락하셨다. 예수님은 말씀하나님이시다. 사단이 어떤 방해물 해도 구원의 사업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께서 사단의 방해 때문에 복음사업을 못할 일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는 돼지 2,000 마리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실 것인데 그 희생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신 것이다.

또 귀신 나간 사람이 맑은 정신으로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면 훗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올 것을 기대하셨다.

이 기대는 훗날 데가볼리 지방에서 4,000 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증명되었다. 거라사는 데가볼리 지역 마을이다. 4,000 명을 먹이신 사건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있었는데 바로 귀신 나간 사람의 감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사흘식이나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막 8:2,3)

궁극적으로는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더러운 존재이며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 완전히 패배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

사단은 이렇게 귀신노릇을 하여 사람들을 속인다.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사단의 이런 활동을 정말 죽은 사람들의 산 영혼이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엉뚱한 설명을 하고 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루시퍼의 교리가 얼마나 깊게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지 않는가.

또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직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자.

“그들(제자들)이 산기슭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를 괴롭히는 병어리 귀신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내보내어 갈릴리 온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부정한 영들을 눌러 그들을 내쫓을 권세를 받았다.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악령은 그들의 말에 순종했다. 이제 그들은 괴롭게 하는 영에게 그 피해자에게서 떠나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으나 사귀는 그의 능력을 더욱 과시함으로써 그들을 조롱할 뿐이었다. 왜 저희가 패배하였는지 설명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저희 자신과 주께 수치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군중 속에는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 주기 위하여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들은 제자들의 주위에 몰려와 질문을 퍼부으면서 제자들과 그 선생이 사기꾼임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랍비들은 제자들과 그리스도께서 정복할 수 없는 악령이 여기 있다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하였다. 백성들은 서기관들을 편드는 기세였고 경멸과 조롱의 감정이 군중들 가운데 팽배했다.

그는 “선생님 병어리 귀신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라고 말했다. 예수께서 괴로워하는 아들을 돌아보면서 “병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울부짖음과 고통스런 몸부림이 있다. 사귀는 나갈 때에 그의 피해자의 생명을 갈기갈기 찢으려는 듯이 보인다. 그 후 소년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는데 겉보기에는 죽은 것 같다. “죽었다”고 무리들은 수군거린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켜서, 심신이 완전히 건강해진 그를 아버지에게 인계하신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분의 이름을 찬양한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워하는 반면에 패배를 당하여 풀이 죽은 서기관들은 화를 내면서 돌아간다.”(시대의 소망, 427~428)

사단은 이런 활동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곤경에 몰아넣고 자기의 권세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각인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계획을 다 무너뜨렸다.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귀신 들린 사람으로 확인된 사건이다. 가장 교묘하고 치명적인 것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아주 정상적인 상태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잖고 교양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들로 일반적으로 존경받는 종교인이나 지식인들이 악령의

지배아래 있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이런 부류에 속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도록 조용한 충동을 하였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가버나움의 광인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악령이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경우에는 그가 경건의 모습을 가장하고 나타나 구주를 거절하는 그들의 동기에 대하여 그들을 기만하려고 하였다. 그들의 형편은 귀신 들린 자의 그것보다 더 희망이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세력 아래 단단히 붙잡혔기 때문이었다.”(시대의 소망 256)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사도행전에도 귀신들린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들의 봉사를 방해한 사건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19 장에는 악한 영들과 선한 영들 간의 싸움에서 악령이 완전히 패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행 19:19]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마술하는 사람들, 곧 악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람들에게 기이히 여김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그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던 마술하는 법을 적어둔 책들을 모아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다. 은 오만이나 되었는데 주석가들은 이것을 현대 화폐 가치로 본다면 800 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수종하는 영들의 승리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귀신들의 활동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악한 영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서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에 이런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사단의 활동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그들도 속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속을 이유도 속을 필요도 없다. 말씀에 굳게 서서 악령의 세계를 바르게 보고 성령과 선한 영들의 도움으로 모든 투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 박사, 박수, 술객, 술사, 신접한 자, 복술 등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다. 여기서 박사라고 한 것은 히브리어 ‘하감’을 번역한 것인데, 그것은 점성술, 행정학, 지리학 등에 관한 폭넓은 식견을 구비한 자들을 뜻하는 말이다. 오늘날 말하는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박사라는 말에 대하여 오늘날 관념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폭넓은 식견을 가졌다고 하는

데는 오늘날 박사들과 상통하는 것이 있지만 그런 뜻으로 박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에 박사가 되려면 점치는 법을 반드시 배운 것 같다.

이런 박사라는 말이 20 회 정도 나온다. 박수는 남자 무당을 뜻하는 말이다. 이 말이 17 회 나타난다. 또 술객이 21 회, 술사가 12 회, 술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세 종류가 있는데 의미는 거의 같다. 신접한 자가 13 회, 복술이 16 회가 나타난다. 이 외에 무당, 점치는 자, 등도 여러 번 나온다. 많이 나오는 말의 수가 99 회이다. 이렇게 기록하여 악령들과 영매들의 실상을 가르쳐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지 않도록 단단히 경계하신 것이다.

백성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다. 이런 사람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사단을 숭배하게 하는 사단의 사역자들이며 결국 사람들을 사망의 사슬에 굳게 붙들어 매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주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다.

[출 22:18]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

[레 20:27]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 18:10~12]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11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12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염소 선교 운동 보충 설명

오아시스 세계 선교회

염소 선교 운동의 성공을 위하여 몇가지 중요한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축복이 관계된 모든 분들과 염소들 위에 함께 하시도록 기도, 간절한 기도를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영어와 방글라데쉬 방언으로 작성하여 이데 동의하여 서명하는 분들에게만 염소를 분양합니다.

1] 염소는 해당 전도자들이나 학교나 학생들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권과 거기에서 창출되는

이익만 생활비 혹은 학비로 주는 것이므로 절대로 임의로 팔아서서는 않됩니다.

각자가 아무때나 팔아서 써버리면 없어져버리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므로 각 합회의 청지기 부장이 25 명의 염소 자급 전도자들을 매월 1 회씩 방문하여 관리 감독하여 잉태, 분만한 새끼 수 등을 조사하여 사진 찍어서 염소의 귀에 번호표를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연합회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하고 연합회장은 저에게 보고해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구도자들 수와 침례자 수도 함께 매기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3]. 매해마다 1 회 약 반수를 판매하여 [각 합회 청지기 부장 입회하에] 십일조와 제 2 십일조를 그 자리에서 20%를 구별하여 청지기 부장에게 주어 합회에 입금하여 오아시스 선교회에서 발판리 집회와 전도집회, 청지기 부흥회 등을 할 때 구도자들의 수송비와 접대비 등 집회비로 사용하고 80%는 전도자의 생활비로 주고 나머지는 반 수는 계속 길러서 수효를 증가시킨다는 서약과

4] 1 년 후에 받은 10 마리가 40 마리로 증가하면 10 마리는 새로운 전도자 1 명에게 분양하고 15 마리는 팔아서 20%현금은 전도집회비용으로 합회에 예치하고 80%는 그 전도자의 생활비로 1 년간 쓴다는 서약.

5]. 만일 이 서약을 이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팔아서 써버리면 즉시 남은 것을 회수한다. 6] 각 합회에서 염소 사육의 경험이 있는분[장로나 집사]을 모시고 25 명 염소 자급전도자들에게 염소 사육법을 미리 철저히 교육하여 질병 예방 약을 먹이고 고창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 각 학교에도 염소 사육의 경험이 있는 분을 고용하여 학교장이 매월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 결과를 연합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매월 염소의 증가수와 25 명 학생들의 성경 통독보고[매월 창세기-신명기; 여호수아-열왕기 하; 예를 들면 ; 성경 통독 노트를 일기식으로 날마다 기록하도록하여 월말에 담임선생에게 보고하여 교장에게 보고한다.

학교에서도 역시 임의로 팔지 못하고 1 년에 1 번만 교육부장 입회하에 팔아서 20%는 합회에 전도경비로 예치하고 80%는 장학금으로 25 명의 학비로 보조한다.

50 마리가 1 년 후에 200 마리가 되면 100 마리만 팔아서 20%는 합회에 예치하고 80%는 25 명 성경 장학생 학비로 사용한다.

그리고 남은 100 마리는 또 1 년간 길러서 400 마리가 되면 200 마리를 팔아서 20%는 합회에 예치하여 학교의 전도집회나 집회의 경비로 사용하고 80%는 다른 25 명의 학비로 사용하므로 50 명에게 주게 된다.

그 다음해에는 남은 200 마리가 800 마리가 되면 400 마리를 팔아서 80%를 100 명의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된다.

실제로는 증가 수가 좀 적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처럼 엄청난 수로 증가될 수도 있다.

해마다 20%를 전도비용으로 합회에 바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을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금년에 100 명의 염소 자급 전도자들을 양성하여 분양하여 100 곳에 분교 개척을 시작하게 됩니다. 1 년 후에는 200 명, 200 곳 분교 개척, 5 년 후에는 염소 자급 전도자 500 명 500 부락에 분교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 합회장들은 해마다 전도자들을 양성 훈련해야 합니다.

각 학교에서도 금년에 25 명에게 주면 연말에 장학금을 주게 되고 2 년 후에는 50 명 이리하여 5 년 후에는 500 명 장학생, 10 년 후에는 1000 명 성경 장학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이 임하여 야곱같은 축복받은 염소 자급전도자, 장학생들이 해마다 놀랍게 증가하여 10 년 후에는 1000 개의 분교 개척이 성공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인연합 미성경연구 연결망 안내

오늘 이 메일을 받은 분들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배움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여 차후 이웃에 전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인물이나 사건 중심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의 중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오직 믿으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 알거나 참된 깨달음없이 맹목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성경을 바르게 경험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 지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성경의 중심되는 내용을 산 경험과 함께 제시됨을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산 경험이라 함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화로 받아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험에는 세상이 줄수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귀한 경험을 위한 성경연구 모임을 미(MEE) 성경 연구로 칭하는데 모세 (MOSES), 엘리야 (ELIJAH) 그리고 에녹(ENOKH)의 영문 이름 첫 자를 딴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 그리고 에녹은 살아 승천하였거나 죽어도 부활하여 지금 땅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현재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주 재림을 소망하며 마지막 시대 주어진 사명에 함께 진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잃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잠잘때 생명없는 상태를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잠이 들때 죽음과도 같은 무의식에 들어갑니다. 그 무의식속에는 선도 악도, 부와

빈도 아무런 차이도, 그것들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잃은 생명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잃은 생명에게는 온 세상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값으로 따질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상상의 한계를 넘습니다. 그런데 2 천년전의 예수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나 결국 그 생명을 가르치는 성경이 예수를 가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영원한 생명은 예수에 대한 체험적 믿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적 믿음은 다가오는 그분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중단없이 지속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미성경연구 모임의 확산을 통해 함께 알리고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신앙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학문이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학문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를 구하고, 또 무엇이든 받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써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이행될 때에는, 허락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Ed 257.7)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 구하게 될 것이며, 계속적인 필요와 의뢰심이 생길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각각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나, 영적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일이다. (Ed 258.3)

미 성경연구 내용

마지막 시대를 위한 성경과 예언의 신의 이해 및 간증을 포함한 말씀

미 성경연구 참여 방법

북미서부 지역모임:

미서부그룹-1: 2018 년 미서부 지역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 8 시 (미서부 시간)에 40 분 동안 진행되며 직접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컨퍼런스 번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12) 775-7035 / 액세스 코드: 889722#

미서부그룹-2: 미국인 기도회원 또는 영어가 가능한 분들을 위해 영어로 진행되는 모임이 매주 목요일 오후 8 시 (미서부 시간)에 50 분간 있으며 아래 번호를 사용합니다.

(818) 273-1108 (엑세스 코드 필요없음)

또한 해외에서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성경연구 모임 소식을 이메일을 통해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성함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성경연구: meebible@prayercoalition.com
문의 전화: 253-326-6451

그외 미 서부 그룹, 동부 그룹,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기타 지역 그룹 모임은 모임이 준비되는대로 추후 발표합니다.

미 성경연구 연결망 (MEE Network) 참여

정기적으로 미성경연구에 참여하는 단체 및 성경연구 그룹들이 함께 모여 연구발표 및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여하기 원하는 그룹의 대표자는 위의 이메일 주소로 순서 날짜 및 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7 국제재림기도인연합 성회 간증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것들

THINGS I HAVE LEARNED ABOUT GOD

Pat Arrabito

I was 21 years old and traveling the world. I'd spent a year teaching English in Korea (and how I loved Korea!) I taught in Japan for a few weeks too. I loved Japan too! After traveling through Taiwan and Hong Kong, I boarded a plane in Bangkok bound for Switzerland.

I'd always wanted to visit one of those Greek islands – the ones you see in travel magazines, with pretty white buildings stacked on little hills overlooking the blue sea. So I headed to Greece and caught a ferry out to the island of Naxos, which I chose because it wasn't a touristy place. I found a room for \$1 per night. The second night someone else was staying in there too... When Sabbath dawned, I decided to catch a bus ride to the other side of the island. There was a small village facing a wall of cliffs on the opposite side of a glassy cove. I liked those cliffs! They looked like a great place to spend my Sabbath; I'd climb around, read the Bible in my bag, pray and have time with God.

I clambered over rocks and through prickly bushes, and finally reached the wall of rocks bordering the cove. Slingsing my bag over my shoulder, I headed out ton the cliffs, climbing on some ledges. Then, the unthinkable happened. My bag slipped off my shoulder, bounced on the ledge where I was standing, and dropped about 40' into the water below.

My heart almost stopped, and I thought, "That could have been me!" And no one in the whole world knew where I was. My parents knew I was in Greece; but they weren't expecting to hear from me for a few more days when I got to Beirut. I stood there, stunned for a few minutes, trying to figure out what to do. Inside that bag was not only my Bible; it was my passport, my traveler's checks and all the Greek money I had (which wasn't very much). I was traveling on \$80 for the whole summer.

There was no way down to the water except the way the bag went down, and I didn't want to do that! I scrambled back through the brush and over rocks and around the cove to the village, where I found a teenage boy who could speak a little English. He went and got his dad, they climbed into their little boat and headed out on the water; but they turned around almost immediately. The water and was too rough.

They took me home, and fed me a lunch of bread with tomatoes and green beans from their garden. The boy and his sister took me to meet their friends and they all showed me around. Soon the whole village knew that an American girl had lost her bag in the sea, and as I walked down the cobbled streets, people came to their doors and invited me into their homes. They spoke words of comfort that I couldn't understand, offered me food to eat, and some folks even offered to give me money.

You can be sure I was begging God to help me! Without a passport, I couldn't leave Greece! Without money I couldn't go anywhere. The villagers thought the sea might calm down, so I decided to wait. The family gave me their guest room for the night and I was up at the crack of dawn, looking out the window! I saw whitecaps! The water was still rough. After breakfast, I roamed with the teens; we swam, climbed a hill, walked the cobbled streets and chatted with friendly neighbors offering me food again. Late in the afternoon the bus driver came looking for me, worried that I hadn't come back to his village. He offered to loan me money to get to the embassy in Athens, but I thought I ought to stay one more night and hope the sea would calm down.

Monday morning, and i was up at the first light again. And guess what?! No whitecaps! The cove was calm! After a quick breakfast, we headed out in a bigger boat with more people. The whole village came out and lined the pier, watching as we chugged across the glassy water and cut the engine not far from the cliff. A man dived overboard. We watched and waited. I seemed like only a few minutes when his head popped up, then his arm shot out of the water, with my bag in his hand!!

They honked the boat horn all the way back; the people shouted and cheered on the wharf. They took

my bag and spread everything out on a flat roof to dry; only one visa washed out of my passport – the Japanese one I was already done with. There was a half-written letter to my parents; I finished writing it and told them to lick the paper – it was salty. The Bible? It was big and fat and salty.

The whole village was overjoyed! Those people loved helping me! Some of them wrote to me for five years. I was independent, needed no one, was traveling the world proudly alone, and God showed me that we all need someone and that someone needs us. I could never have afforded the lovely room and delicious food they fed me. But they loved giving it to me. My calamity was their opportunity. God showed me that our troubles are not for nothing, that our great need might be someone else's great blessing.

God has been so good to me!

Has God been good to you? Then you have a story to tell, and it could be you standing here telling how good God is and how He has loved you, and how you love Him back. The whole universe could be watching you tell the amazing things God has done for you.

#1. EVERYONE HAS A STORY

In I Cor 4:9 Paul tells us, "For we are made a spectacle (theater) unto the world and to angels, and to men."

One of my favorite ladies, Ellen White, wrote: "Our confession of His faithfulness is Heaven's chosen agency for revealing Christ to the world." DA189

The most powerful witness you have is the goodness of God in your own life, what He has done for you.

Remember the story Matthew and Mark tell, of the demon-possessed man (or men) in the cemetery? How Jesus cast out the demons and gave them back their sanity, and when Jesus left, they wanted to climb in that boat and go wherever He was going?

Mark says, " ...But He did not let him, but said to him, 'Go home to your people and report to them what great things the Lord has done for you, and how He

had mercy on you.'" Mark 5:19 He sent them home to tell their story.

Our lives are on display to the world and the universe. We are being watched!

Paul told the Corinthian believers, and us, in 2 Cor 3:2,3:

"You are our epistle, written in our hearts, known and read of all men: being made manifest that you are an epistle of Christ, ministered by us, written not with ink but with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not in tables of stone, but in tables that are hearts of flesh."

Whatever path God takes us on, whether it's the life we planned or something entirely different, He has a plan and a purpose, and He intends to show the universe what He is like. Does it amaze you that the God of the universe wants to live His life in you and me?! It does me.

He's been very good to me... I've learned that

#2. GOD REALLY DOES LOVE ME, AND HE WANTS TO LOVE THROUGH ME

Jer 31:3 says, "The Lord has appeared of old to me, saying, Yea,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therefore with lovingkindness have I drawn you."

Jesus said,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Continue in my love." John 15:9

So, I was a rebellious teen. I grew up in an Adventist home; my parents were missionaries; my dad was a college administrator. I went to Adventist schools; I had every opportunity to know and love God. I heard, "God loves you," my whole life.

I was 16 and, like I said, rebellious; I was lying, cheating and stealing. I was angry and disrespectful. It was the spring Week of Prayer at my school. I sat down in chapel the first day, looked up toward the ceiling and said to God, "Don't think you can get me this time!"

By the end of the week, after listening to talks about Jesus's last three days of life and the crucifixion, I KNEW that God liked me. Sure, I'd heard, "God loves

you” my whole life. But this week, the Holy Spirit impressed my heart that God really, really liked me. Ornerly, angry and rebellious though I was, God liked me. I couldn’t help but like Him back!

God does really, really like me; and He really, really likes you too.

John, who’s called the disciple of Love, says, “Love begets love. 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d us.” I John 4:19

That love transformed my life! And you know what’s really amazing? I wasn’t even looking for God! He came after me, He revealed Himself to me, when I wasn’t looking for Him. Doesn’t that give you hope for all those people you pray for?

I remember my first baby, Tony, 6 ½ months old; he had just started crawling, and he chugged from the bedroom to the kitchen on his little knees to be with us! He wanted to be with us! It was the first sign that he loved us back! Love begets love!

You know, everybody wants to be loved. Walk down the street in any city. you see young professionals, bent-over elderlies, ragged street people, rushing shoppers, children in school uniforms, messengers on bikes, Somali taxi drivers, dignified executives, nannies, street sweepers, beggars and high-powered businesspeople – and not one of them doesn’t want to be loved! You can know for sure that everyone you meet wants to be loved.

And God has called us to love them, with His love. I John 4:7,8 “Beloved,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is of God; and every one that loves is born of God, and knows God… God is love.”

That brings me to #3 in the things I’ve learned about God:

#3. BECAUSE GOD LOVES ME I AM OF GREAT VALUE.

I John 4:10 “Herein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It’s God’s love that determines our value. He loves us so much that he sent His own Son, His own self, to take our punishment. That’s because we’re so precious.

God told Israel that He chose them, “to be a people for His treasured possession, out of all the peoples who are on the face of the earth. It was not because you were more in number than any other people that the Lord set His love upon you,.. but it is because the Lord loves you…” Deut 7:6-8

God loves me because I’m His. That’s all. Not because of what I am or what I do for Him or how unique and special I am. I’m unique and special because he loves me, not to cause Him to love me.

I remember when my first son, Tony, was born. It was a long, hard labor; it took many hours to get him out. But when I held that baby in my arms – slimy, covered with white vernix, his face smashed and his head shaped like a bullet from those long hours of labor – I was overwhelmed with a love bigger than I can begin to describe!

This baby had only caused me pain; he did nothing to win my love, earn my love or pay back my love. But I loved him with my whole heart and I’d have given my life for him in an instant!

It struck me that it must be that way with God, only more. I’m His child. I don’t win His love, earn His love, or pay it back, but He loves me with an everlasting love; He died for me. I’m His and He’s min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sent His only-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ohn 3:16

He considered me of such great value that He paid the most expensive price in the universe for me! Do I see myself as that precious?

My dear sister Ellen says it this way: “God is disappointed when His people place a low estimate upon themselves. He desires His chosen heritage to value themselves according to the price He has placed upon them. God wants them, else He would not have

sent His Son on such an expensive errand to redeem them.” DA717/664

There’s more to this love. While I was pregnant, some friends came to see us with their new baby. Honestly, the child was ugly. I love babies, and maybe now he’d be beautiful to me, but at the time, he just looked awfully homely. But the parents seemed totally oblivious! They kissed and snuggled him and showed him off as though he was gorgeous. I kind of admired that, but I vowed that when my baby was born, if he was ugly, I’d admit it. Just because he’s ugly doesn’t mean I don’t love him!

Then my son was born – and honestly, when I looked at him, he was gorgeous! Until I looked back at his newborn pictures. Then I could see that Tony was actually really homely! Like I told you, his head was pointed and his face was smashed. But I loved him so much that I couldn’t see the ugly! He was just beautiful to me! And I learned that love creates beauty! And eyes of love see beauty.

God sees us with eyes of love.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said Solomon. Ecc 3:11

By the way, Jim and I had 4 children, all beautiful. I always said I wanted a dozen red-haired boys. But our quivers were full with three (non-red-headed) boys and a girl. All beautiful!

The disciple of Love, John, says, “Love begets love. 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d us.” I John 4:19
Love gives value and love creates beauty and love begets love.

It must be that the rest of the universe knows these things about God; they understand how precious each creation is, but we, with our sin-darkened minds, must discover it through our experiences with God in this controversy between good and evil.

And in all our experiences, we can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em that love God, to them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 8:28 Even the troubles; even the suffering.

#4. GOD LOVES US, AND GOD ALLOWS US TO SUFFER

This might be something that heavenly beings and those living elsewhere in the universe have a hard time understanding. Suffering.

I heard this line once and it stuck with me: “Treat everyone you meet as though they have great pain, because they do.”

Because everyone suffers.

Once upon a time I thought I could avoid suffering by obeying God nicely and quickly. He wouldn’t need to discipline me then, right? But then I read in the book of Hebrews, about the most innocent person of all to suffer – Jesus.

Heb 2:10 & 5:8 –

“For it became Him, for whom are all things, and by whom are all things, in bringing many sons unto glory, to make the captain of their salvation perfect through suffering.”

“Though He were a Son, yet learned He obedience by the things which He suffered;”

So if even Jesus suffered to perfect His character, how could I ever expect to be like Him without suffering?

And if, like Jesus said, “The disciple is not above his master, nor the servant above his lord.” Matt 10:24, how could I avoid suffering?

It was really a new thought to me, that even those who love God will suffer; that suffering doesn’t always or only mean discipline; it doesn’t mean God isn’t paying attention; it doesn’t mean God has abandoned us. It does mean that suffering has purpose and might even be part of God’s plan for us. Could it even be a gift of divine love?

I was in my 30’s and I’d never really suffered…

It was a Monday afternoon in Sept. Our two youngest children were jumping on the trampoline outside with friends. Their mom was chatting with me inside. We

were looking forward to Jim and our two oldest sons getting home from Alaska that evening. One of Jim's researchers had driven to the airport in Los Angeles to pick them up.

To backtrack a little – they'd been in Alaska on a photography expedition. Jim was getting some video for a documentary series about the Sabbath. The story came from the mid-1800's when an Inupiat (Eskimo) began hearing a bird talking to him. The words became a voice, God's voice. It talked to him many times, and told him many things. It told him about seventh-day resting, and he taught his people that every seventh day they didn't have to work; they could visit him and he would tell them about "the Grandfather" – God.

Jim had enough airline miles for two free tickets, so our two oldest sons, Tony, age 13, and Joey, 11, got to go with him on their dream trip, up north of the arctic circle. For ten days they'd played with native children, fished in the creeks, watched for elk and even flown to other villages where Jim filmed interviews with native old-timers.

A native pilot had flown them back to civilization in a small plane the afternoon before and they were supposed to catch their flight out of Anchorage and land in Los Angeles this afternoon.

My phone rang. It was our researcher, telling me they weren't on this flight; had I heard anything? I had not. Ok, I'll wait, he said. Maybe they missed their flight.

I was pretty sure if they'd missed their flight, they'd have called us. I called our friends in Alaska, the people who owned the small plane, who had told us the Eskimo story and had arranged for this trip. That's when I heard that their small plane had never arrived at its destination in Anchorage the night before. WHAT?!

I called my children in to pray for our family, even as I assured myself that they must be safe; Jim's work wasn't finished and God had opened the way for travel and financing, so we knew He was going to finish that documentary!

Besides, God knew I couldn't bear to lose a child. I took refuge in the promise: "There has no temptation take you but such as is common to man: But God is faithful, who will not suffer you to be tempted above that ye are able; but will with the temptation also make a way to escape, that you may be able to bear it." I Cor 10:13

We prayed. Then we waited. Weather was bad in Alaska; Search and Rescue planes couldn't fly.

Climbing into bed that night, I told God, "I'm sure they're ok, but please talk to me. I need to hear You." I picked up my Bible and it opened to Job. I'd been studying Job. I wanted to understand his experience and I was on my way through the book for the second time. The words that jumped out at me were chapter 10:23 –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ried me, I shall come forth as gold."

It must be that it's a trial to have to wait for news. That's what I thought. Later I cherished those words as a direct message from my heavenly Father. And truly, if He can't make gold out of our trials and heartaches, they're not worth it!

We woke up and waited. Finally, early in the afternoon Search and Rescue called; they'd sighted the plane and were sending a helicopter in. My brother, who's a pilot, had been keeping in touch with the searchers, and he called to tell me he was coming in his own plane to be with me when I got the news. My house by this time was full of people waiting with us – my dad, our pastor, our neighbors and others.

Dad picked up my brother at our little airport and brought him back. They took me outside, wrapped their arms around me, and said, "There are no survivors."

Friends, that was 27 years ago, and I still cry. My heart aches.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ried me, I shall come forth as gold."

#5. GOD LOVES US, AND HE ALLOWS US TO BE IN GREAT NEED

I knew God loved us. And I could see ways that He'd given me some preparation. My question wasn't "Why." My question was, "Do I trust God?"

After those awful words- I don't know how long after - I went back into my house; Andy, our 7-year-old son ran toward me, flinging the words, "my daddy's dead, isn't he?" at me. How could I answer him?! How could I deliver the blow to his little heart? I wanted to say no, but that wouldn't make it so. Then he was on my lap, and my daughter Adel, almost 9 too. "How about Tony and Joey?" she asked. I had to tell them. And my heart broke that I, their parent, their protector, had to tell them this awful truth.

We huddled together tightly, my arms around them, this tiny spot of intense agony in the huge universe. Does God know? Does He care?

Yet inside me was a core of peace that I knew was not me. In the midst of the worst thing that could ever happen to me, there was peace. I felt assurance that yes, God knows, and yes, God cares. Our loss was His loss; our agony was His agony. He too wouldn't get to see them again until the resurrection.

Then Adel said, "Mom, I'm sure glad you aren't the kind of person who blames God for everything." Did she too feel that Presence?

Sister Ellen says this: "Grace is an attribute shown to undeserving human beings. We did not seek after it; it was sent in search of us. God rejoices to bestow grace upon all who hunger and thirst for it, not because we are worthy, but because we are so utterly unworthy. Our need is the qualification which gives us the assurance that we shall receive the gift." TM519

What was left of our family was thrown into great need. We were cut in half. We were abandoned. We hardly knew who we were without our other half.

But God promised our need is the assurance that we shall receive; and He who feels no need receives nothing. So we cried out to God, and He gave us His promises.

When the poor and needy seek water, and there is none, and their tongue fails for thirst, I the Lord will

hear them, I the God of Israel will not forsake them. I will open rivers in high places, and fountains in the midst of the valleys: I will make the wilderness a pool of water, and the dry land springs of water. I will plant in the wilderness the cedar, the acacia tree, and the myrtle and the pine, and the box tree together: that they may see and know, and consider and understand together, that the hand of the Lord has done this, and the Holy One of Israel has created it." Isaiah 41:17-20:

God not only provides, He provides abundantly and in such a way that "We may see and know and consider and understand" that the hand of the Lord did it!

He does it in such a way that we can praise Him and give Him credit and glory and tell the whole world how good He is! He has done that for me.

#6. SUFFERING IS NOT FOR NOTHING

Surely God does not allow our suffering, and the sufferings in this world, for no purpose! Maybe we don't need to be discouraged or angry because of suffering; maybe God is allowing us to see Him more clearly, and to represent Him to the world and the universe.

In the time of Jesus, the disciples thought that suffering was directly caused by sinning. And there's some truth to that - sin does cause suffering. But Jesus said the sickness of Lazarus was "for the glory of God, that the Son of God might be glorified thereby." John 11:4

Lam 3:31-33 tells us: For the Lord will not cast off forever: But though He cause grief, yet will He have compassion according to the multitude of His mercies. For He does not afflict willingly nor grieve the children of men."

And Sister Ellen adds: "Our heavenly Father does not willingly afflict or grieve the children of men. He has His purpose in the whirlwind and the storm, in the fire and the flood. The Lord permits calamities to come to His people to save them from greater dangers. He desires everyone to examine his own heart closely and carefully, and then draw near to God, that God

may draw near to him. He is the Giver of all our blessings, the Orderer of all our experiences...

Trials come to us all to lead us to investigate our hearts to see if they are purified from all that defiles. Constantly the Lord is working for our present and eternal good. Things occur which seem inexplicable but if we trust in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humbling our hearts before Him, He will not permit the enemy to triumph...

Every soul that is saved must be a partaker with Christ of His sufferings, that he may be a partaker with Him of His glory. How few understand why God subjects them to trials. It is by the trial of our faith that we gain spiritual strength..." The Upward Look 65

Our suffering is designed to glorify God and to strengthen our trust in Him. Maybe too, our suffering is for someone else's blessing.

1 Cor 10:11 "all these things happened to them for ensamples, upon who the ends of the world are come."

Think about Joseph. His brothers, angry and jealous of him, sold him to traders who sold him to the Egyptians. Far from home and father, this teenager must have felt like the world had ended for him. How could any good possibly come from such hatred?!

Yet look what God did with it! Joseph lived to tell his brothers:

"But don't be upset, and don't be angry with yourselves for selling me to this place. It was God who sent me here ahead of you to preserve your lives." Gen 45:5 NLT

How about Daniel's friends, captured by King Nebuchadnezzar and taken to Babylon, far from home, family and the worship of the True God. Yet because of their faithfulness in suffering, the great king of Babylon got to see God!

"Lo, I see four men walking in the midst of the fire, and the form of the fourth is like the Son of God!" Dan 3:25

What about Lazarus? His sisters wept at his death and Jesus took too long coming. But then He said, "This sickness is not to end in death, but for the glory of God, so that the Son of God may be glorified by it." John 11:14

What joy when Lazarus was raised from the dead, a testimony to the power and goodness of God!! Do you think Lazarus minded the suffering that led to his death? No, His suffering blesses us to this day!

Suffering comes to everyone. If you haven't yet suffered, you will.

Isaiah talked about those dark times:
"Who is among you that fears the Lord, that obeys the voice of His servant, that walks in darkness, and has no light? Let him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and stay upon his God." Is 50:10

When I first read that, I wondered why people of God would be walking in darkness. Don't we have the light? Words from M.L. Andreason, one of Adventism's saints, helped me:

"Dark hours will come to every soul, as came to Jesus in the garden. Has God forsaken us? Did God forsake Jesus? Yet He prayed three times, and the cup did not pass.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is God's advice when dark days come. To learn to walk with God in the dark is one of life's lessons, and a most precious one. It develops faith, courage, hope and trust as no experience walking with Him in the light ever can. So when dark days come, do not try to make a light of your own. Put your hand in God's. Walk a little closer, trust a little more, and a richer, nobler faith will be yours." M. L. Andreason, p. 68

I know things about God now that I could never have known, did I not need Him so desperately. While you and I might never choose for ourselves the experiences that have come our way, we can thank God for His mercy in allowing us to see His goodness and experience faithfulness. He has been so good to me, and I love Him!

Tomorrow I'll share with you more of His amazing lessons.

재림기도인연합 회보

기도인연합 회보는 각 교회의 기도모임 소식을 전하며 재림교회 성도들의 연합기도를 권장하는 단체인 기도인연합의 공식회보입니다. 새로 이메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름과 전화번호 소속교회 및 간단한 소개를 하여 admin@prayercoalition.com (제목: subscribe)으로 보내시면 메일리스트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언제라도 이메일 받기를 원치 않을경우 제목: unsubscribe 로 하여 보내시면 메일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이 회보 내용에 관한 의견 또는 문의는 editor@prayercoalition.com 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인연합/ 연합기도운동 안내

우리들과 교회의 영적 각성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관계 회복이 시급함을 자각하며 2007년 8월 9일 시작된 연합기도운동이 2007년 8월 26일 2차 모임을 시작으로 미주와 해외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간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 5:17, 단 10:12) 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때 우리의 교회일은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의 봉사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고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연합기도운동에 교회에서 단체로 또는 개인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미서부: 253-326-6451 • 626-665-8445 / 동부: 440-600-1857 • 336-340-9274 / 한국: 033-763-1054
/ 일본: 03-5604-5125 / E-mail: info@prayercoalition.com



TEL: 619-758-4006 • FAX: 858-909-8214
Prayer Coalition P. O. Box 1216, Delano, CA 93216-1216
Email: admin@prayercoalition.com Web: prayercoalition.com